

한·중 전통문화 교류 협력 모색

국립민속국악원, 중국 남경 전매대와 좌담회 갖고 문화예술 교육 협력 등 논의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지난 5월 18일, 중국 남경 전매대학교(남경, 미디어·예술계)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좌담회에서 한·중 전통문화 교류와 문화예술 교육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국립민속국악원이 그간 이어온 한·중 문화교류의 연장선에서 추진, 지난해 8월 남경 전매대학교 방문단이 국립민속국악원을 찾은 것을 계기로 양 기관 간 문화예술 교류의 기반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만남에서는 전통예술 분야 교류와 미래세대 대상 문화예술 교육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며 상호 이해를 넓혔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한·중 문화예술 교류와 예술 분야 협력, 미래세대 대상 교육 교류,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전통예술의 현대적 활용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전통문화 기반 디지털 콘텐츠 활용 사례와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향후 교류 가능성을 공유했으며, 이번 방문은 전통예술과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양 기관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지속가능한 교류



국립민속국악원은 지난 5월 18일, 중국 남경 전매대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좌담회에서 한·중 전통문화 교류와 문화예술 교육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현 원장은 “이번 교류가 한·중 양국 미래세대 간 문화적 공감과 정서적 유대를 넓히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호 우호 발전을 이어가는 문화교류 모델로 발전해 나가기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문화예술인과 미래세대가 한국 전통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8부 ‘굿패와 사랑’ (11)

“잘…… 있었어?”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명희와 남준은 한동안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명희는 남준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허공 어딘가를 더듬고 있었고 그런 명희를 바라보는 남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잘…… 있었어?”

명희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응, 잘…… 있었어. 명희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두 분 이렇게 서 계시지 말고 여기 마루에 좀 앉으세요. 뭐 마실 것쯤 가져올게요.”

순옥은 명희 손을 잡아 마루로 이끌었고 남준도 조심스럽게 마루로 갔다. 남준은 마루에 앉았지만 명희와 떨어져서 앉았다. 서먹서먹하게 앉아 있다가 남준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여전히 너는 꿈꾸나…….”

명희를 만나고 온 뒤 남준은 더 고민이 깊어졌고 생각이 많아졌다. 두 사람은 여전히 미혼이었고 혼인을 약속했던 사이였다. 명희는 시각을 잃었지만 되고자 했던 무당이 되었다. 명희에게는 절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남준은 문둥이다. 문둥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완벽한 결점을 갖고 있다. 완벽한 결점은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고 상쇄될 수도 없다.

“요새 어디 안 좋아요? 표정이 어두워요.”

예배소에서 만난 루이지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남준에게 물었다. 남준은 고개를 저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앓은 무당은 찾았어요?”

남준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머, 잘 되었네요. 호호호. 그런데 왜요? 그분이 남준님을 앓어하던가요? 아니면, 결혼을 하셨던가요?”

남준은 역시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왜요?”

남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병……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하지만 남준님이 앓고 있는 병은 전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만 좋다고 한다면 두 분이 얼마든지 같이 살 수도 있었어요.”

남준은 희미한 미소를 짓고 서 있을 뿐 루이지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구세요?”

배순옥은 놀란 눈으로 방문객을 바라봤

다. 키가 크고 골격이 큰 외국인 여자가 대문 앞에서 있었던 것이다.

“여기 혹시 앓은무당…….”

외국인 여자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어색한지 말을 맺지 못했다.

“예, 맞아요. 점 보러 왔어요?”

“예.”

순옥은 여자를 들어오라고 했다. 순옥이 이 집에 온 후 한번도 외국인 찾은 일이 없었고 더구나 점을 보거나 굿을 해달라고 한 일도 없어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실은…… 점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무당……. 남을 만나러 왔어요.”

외국인 여자는 루이지 수녀였다. 순옥은 방으로 들어가 신당에 있던 명희에게 외국인 여자가 명희를 만나러 왔다고 했다. 명희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굴까 싶은 것이다.

“루이지는 명희와 마주 앉았고 열은 미소를 지었다. 루이지가 보기에도 명희는 참하게 생겼고 남준이 병을 앓지 않았다면 잘 맞는 배필이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루이지는 자신은 수녀이며 동해원에서 남준과 같은 나환자들을 돌보며 살고 있다고 자기를 소개했다.

“남준님이 앓고 있는 병은 전염되는 병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거의 95퍼센트 이상 이 병에 면역력을 갖고 있지요. 남준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병 때문에 무당님께 해를 끼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루이지의 말을 명희뿐만 아니라 남준도 들었다. 루이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날 남준은 명희 앞에 앉았다.

“언니한테 내가 주체롭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언니는 그동안 혼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언니를 좋다고 하면서 선을 보자고 한 사람도 스무 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데 언니는 다 마다했어.”

전주역사박물관, ‘이씨뜰에 핀 아름다운 벼’ 특별전

22일~10월 11일 전북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기념 개최

전주역사박물관은 오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기념 특별전 ‘이씨뜰에 핀 아름다운 벼’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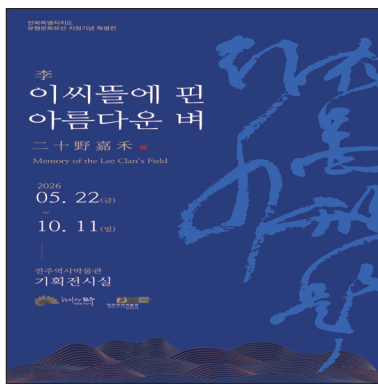
특별전은 지난해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주 이씨 사정공파(마전) 종중 문서’를 중심으로 전주 이씨 집성촌인 마전마을과 이씨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전시는 크게 △호적류 고문서를 중심으로 마전마을에 뿌리내린 전주 이씨의 이야기 △교지와 분재기 고문서를 중심으로 서부신사가지의 넓은 이씨들의 주인과 관련된 이야기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유산으로 가는 길’ 영상 △소지류 고문서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마전마을의 유지’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또한 전시 첫날에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김영준 전북대학교 이채연연구소 연구교수를 초빙해 ‘전주의 명문가 마전 이씨 고문서 토포보기’를 주제로 전시 연계 특별 강연과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의 해설과 함께 특별 전시를 관람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권희성 기자



고창농악보존회, ‘시네마X극 레퍼토리:사이닝’ 서울·광주서 공연

(사)고창농악보존회가 전통연희와 시네마영상,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창작공연 ‘시네마X극 레퍼토리 : 사이닝’을 서울과 광주 2곳에서 선보인다.

서울은 6월 5일 서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고, 광주 공연은 6월 7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진행된다.

‘사이닝’은 고창농악의 당산굿, 판굿, 풍장굿 등 다양한 마을굿을 바탕으로 한 소녀의 성장과 기억을 풀어낸 융복합공연이다. 기록 영상과 고창농악을 결합한 ‘시네마X극’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 개인의 경험과 공동체의 시간을 무대 위에 담아낸다.

지난해 초연 이후 서사와 무대 구성을 보완해 더욱 확장된 형태로 선보이며, 장면의 흐름



과 인물 간 관계성을 강화하고 고창농악 특유의 장단과 몸짓, 현장성을 보다 밀도 있게 구현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